

충남 역사문화의 정체성

-백제의 얼과 맥-

윤용혁 | 공주대 교수

I. 머리말-충남 역사문화의 정체성

근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충남도청의 이전 확정 등은 충남도민의 오랫동안의 소외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지역발전에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심(HEART OF KOREA)'이라는 충남의 브랜드 슬로건은 이러한 기대와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의 방향을 가다듬어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 결과는 그동안 상당한 축적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정리

하여 그 역사문화적 전망을 간명하게 제시한 작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다분히 주관성이 많기는 하지만, 충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얼마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같은 논의가 전문 학자들에 의하여 앞으로 좀더 제안되기를 기대한다.¹⁾

II. 충남의 지정학적 조건

1. 터를 고르면 가장 살만한 곳

한반도의 중서부에 자리한 충남은 산과 강과

1) 본고는 원래 <충청남도 문화예술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주)메타기획컨설팅(대표이사 이승훈)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원고이다. 그러나 실제 간행된 정책보고서(<충청남도 문화예술종합발전 계획 정책보고서, 2005>)에서는 보고서의 성격상 원고의 일부만이 간략히 요약된 형태로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간명히 정리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나름대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원고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공개하게 된 것이다.

들과 바다가 고르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다. 들은 아주 넓지도 좁지도 아니며,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강도 아주 길지도 짧지도 않다. 태풍과 가뭄 등 자연 재해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었다. 이같은 충남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에 대하여 가장 좋은 묘사의 하나가 조선조 이종환의 「택리지」에 적혀져 있다.²⁾

(충청도의) 물산은 영남 호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 가까운 남쪽에 있어 사대부들이 모여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서울에 살면서 이 도에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만하다.

즉 충청도(충남) 지역은 물산이 대체로 여유 있는 편이고 산천도 평범하면서도 예쁜 맛이 있고 더욱이 서울에 가까워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으로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나지 않은 자연적 조건, 모든 것이 그만그만 갖추어져 있는 조건, 그러면서도 조급은 여유 있는 물산 등 재요소는 충남 사람의 심성을 그와 닮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억척스럽거나 요란하지 않은 기질, 뉘는

것을 경계하며 대체로 중간쯤에 끼어 있는 듯한 특성이 그것이다. 충남의 여유 있고 부드러운 날씨 역시 그러한 자연적 조건과 연결된다.

2. 금강권과 내포권

그러나 같은 충남이라 하더라도 공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이른바 '내포분화권'으로 칭해지는 서부지역과는 약간의 차가 있다. 충남의 동남부 지역은 대체로 백제시대의 왕도였던 지역이다. 금강과 계룡산으로 상징되는 내륙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부의 내포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고, 가야산과 삼교천이 그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 차령산맥의 줄기가 서남으로 뿔겨질러 가면서, 그 동쪽과 서쪽의 구분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공주) 공주는 경계가 매우 넓어 금강 남쪽과 북쪽에 걸쳐 있다. 지방 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말에 "첫째가 유성이고 둘째가 경천이며, 셋째가 이인이고 넷째가 유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만한 곳을 말한 것이다.

(대전) 갑천 동쪽은 회덕현이고, 서쪽은 유성

2) 「택리지」의 작자 이종환(1690-1756)은 공주 연기의 금강변에 거주하였다. 공주시 정기면 뿔송리 금강변의 '사송정'이 그의 집안인 것이었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의 가족묘는 연기군 남면 고상리(현 무기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문중 교수의 「택리지로 본 충청도」, 『문화역사지리』13, 3, 2001; 「이종환과 공주」, 『웅진문화』15, 2002 참조.

촌과 진잠현이다. 동서 양쪽의 산이 남쪽으로 들판을 감싸 안으며 북쪽에 와서는 서로 교차되어 사방을 고리처럼 둘러 막았다. 들 가운데는 평평한 둔덕이 구불구불하게 뻗었고, 산기슭이 깨끗하고 빼어나다. 구봉산(九峰山)과 보문산은 남쪽에 불끈 솟아 말고 밝은 기상이 한양 동교(東郊)보다 나은듯하다. 전지(田地)가 아주 좋고 넓으나, 바다가 조금 멀어 서쪽으로 강경의 교역에 힘입는데, 강경까지 백리이다.

한편 삶의 조건으로서의 충남시부 지역에 대한 평가도 만만치 않다. 이 내포지역은 내륙수로의 교통상의 기능 쇠퇴, 대전권의 발달 등에 의하여 근대 이후 지역발전이 늦어졌지만, 사람들의 거주 환경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내포)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 200리 쯤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가 쭉 들어온 곳이다. 동쪽은 큰 들판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由宮津)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 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

주와 통한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 병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서는 사대부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에는 학질과 염병이 많다.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과 습원(濕原)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泉石)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란다.

같은 충남이라고는 하지만, 금강을 끼고 있는 공주, 부여, 논산, 연기, 대전 등 동부권과 삼교천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은 적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두 지역이 금강과 삼교천을 각각 대내외의 주요교통로로 활용하면서 별개의 생활권이 조성되어온 반면 차령산맥의 줄기가 양 지역간 교통상의 단절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들 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격차는 꽤 현저한 편이며, 지역개발상의 문제, 도내 권력의 주도권 문제 등 일련의 요소에 의하여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³⁾

3) 내포문화권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역 균형개발의 차원에서 제기한 이계 내포문화권개발 특정지역 사업으로 연결되었고, 한편으로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3. '금강, 내포' 이외의 제3의 권역

충남 동부권(백제고도권 내지 대전 근린권)과 내포권으로 충남을 대별할 때,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제3의 지역이 천안, 아산 및 서천 지역이다. 천안, 아산은 충남의 북부에 위치하면서 삼교천의 교통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데, 나누자면 내포권에 가깝다. 그러나 근년 서울중심의 체제가 재편되면서 충남보다 오히려 수도권의 범위에서 파악되는 별도의 권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서천은 금강의 하류에 있다는 점에서 금강을 교통축으로 하는 충남의 동부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주 동지와 지리적 거리가 대단히 멀고, 특히 근대 이후 수로교통의 기능이 무의미해짐으로써, 충남의 두 권역에서 모두 고립되는 위치가 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진북 군산권이랄 수 있지만, 군산과는 행정권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산의 영향력과 대립하며 독자적 입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남도내에서 고군분부의 가장 어려운 입지에 처하게 된 것이 서천지역이라 할 수 있다. 충남 지역의 지역문화 이해에 있어서는 이같은 내부적 격차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Ⅲ. 충남문화의 바탕-백제문화

1. 백제에 이르기까지

한강 유역에 거점을 두고 있던 백제가 금강유역으로 그 중심을 옮긴 것은 475년의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하여 백제의 왕도 한성이 함락된 결과였다. 이후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한 부여 도성의 함락에 이르기까지 약 2백년 간, 백제는 공주와 부여, 금강유역을 새로운 왕도로 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백제의 공주 천도, 그리고 금강권에서의 발전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일찍부터 지역적 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만 년 전 금강유역의 구석기 문화의 존재에서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에 이르면서 많은 삶의 흔적을 남겼다. 그중에서 특히 충남은 한반도에서 가장 풍부한 청동기문화의 거점이었다. 충남의 대부분 시군에서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청동기 유물과 집자리들이 풍부하게 발견된 바 있다. 이들은 구릉지대를 그 거주지로 선호하며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부를 축적하고 전쟁을 통한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었다. 백제 이전의 이같은 지역기반이 백제시대 문화의 발전 혹은 왕도로서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⁴⁾

4) 2002년에 발굴된 공주 의당면 수존리의 청동기 유적 및 금동권을 수반한 백제 고분은 웅진천도 이전의 공주에 대하여 꼭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년석 「수존리 고분군과 백제의 웅진천도」, 『역사와 역사교육』 11, 2005)

2. 백제의 왕도(475-660)

금강에서의 백제왕도로서 기간은 475-660년에 이르는 약 2백년이다. 백제의 건국을 기원전후의 시기로 생각할 때, 천도 이전 약 5백년의 도읍이 현재의 서울(한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금강유역의 백제가 한성 백제의 절반 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2백년 기간인데도 백제를 바로 공주, 부여와 연결 짓는 이유는 바로 이 금강유역의 거점 기간동안 백제가 문화적 발전과 대외교류에 의한 문화 전파 등 팔목할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화의 발전과 전파에 가장 중요한 파이프(管) 역할을 담당한 것이 불교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주, 부여시대의 불교는 단순한 종교라는 단위가 아닌 선진의 종합적 문화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시대 공주 부여의 왕도로서의 발전은 금강의 갖는 경제적, 물류운송, 군사적 제 기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금강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금강의 기능은 백제의 멸망 이후에도 지역의 행정중심을 이곳에 계속 유지하는 배경이 되었다. 신라의 통일이후 웅천주(오늘의 충남지역)의 치소가 공주에 설치되었고, 이같은 중심성이 조선조 후기, 1602년 충청감영의 공주 설치로 연결된다. 금강의 기능이 상실된 근대 이후 대전의 도시 건설과 발전은 금강의 역사적 기능 변화에 대한 대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충남으로부터 대전의 분리는 단순한 도시

의 분리가 아니라, 충남이 갖는 역사적 전통의 근간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근년 충남이 갖는 문화적 중심성의 상실과 혼란은, 이같은 인위적 정치적 조치의 부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3. 무령왕릉과 백제금동향로

공주부여 2백년 백제의 도읍기간동안 백제분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든다면 공주의 무령왕릉과 부여의 백제금동향로일 것이다. 무령왕릉은 6세기 전반 공주도읍기의 정치적 문화적 대외적 발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며, 금동향로는 6세기 후반 부여에서의 백제문화 발전을 가장 잘 집약한 명품 유물이다. 전자는 1971년에, 후자는 1993년에, 대략 20여 년 간격을 두고 공주, 부여에서 발견되어 백제분화의 우수성을 부각시켰다. 전자가 백제문화에 있어서 불교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후자는 불교 이외의 보다 다양한 사상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유물 유적의 등장 자체가, 백제 이벤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지역을 달리하여 차례로 발견된 점도 매우 흥미 있다.

최근 공주에서는 무령왕릉을 소재로 한 공주 중심의 한중일 국제교류의 추진 및 무령왕 소재의 백제문화제를 시도하고 있다. 백제분화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하여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

사분화재중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아직 등재 시키지 못한 나라가 백제이다. 백제문화를 상징화하려 할 때, 그 대표성을 분명하게 갖는 공주 부여 두 지역에서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 자료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

4. 내포지역의 백제 불교문화

금강권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의 발달에 부수하여 내포권에서도 백제문화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왕도의 부수적 차원이 아닌, 독자적 문화발전의 단계에까지 이비 이르러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백제시대 내포지역의 독자수준의 문화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내포지역의 '삼불(三佛)'이다. 예산 사면석불(보물 794호), 태안 마애삼존불(국보),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48호) 등이 그것이다.⁶⁾

1983년에 발견된 예산의 사면불은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소재한다. 높이는 대략 3미터, 4면중 넓은 면은 110-120cm, 좁은 면 50-60cm이다. 남쪽의 좌상은 본존에 해당하는데, 연꽃무늬를 두광으로 하면서 불꽃이 치솟는 듯한 광배를 가지고 있다. 남면의 좌상에 비해, 동면 빛서,

북면은 입상이다. 백제의 대표적 석불로서 서산 마애불보다 제작 시기가 다소 앞서는 6세기 전반이다. 태안군 태안읍 남분리 백화산 기슭에 소재하는 태안마애불은 양옆의 높이 2m가량의 여래상, 중앙의 1.3m 높이 보살상을 배치하여 다소 파격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불상 명칭은 가운데는 관음보살, 왼쪽은 석가여래, 오른쪽은 약사여래로 파악된다.

시산시 운산면 용현리 소재의 서산마애삼존불은 '내포삼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불상이다. 가운데 높이 2.8m의 석가여래본존상을 중심으로 왼쪽 보살입상은 1.7m, 오른쪽은 결가부좌의 비록반가사유상을 배치하였다. 화사한 본존의 옷음으로 인하여 '백제의 미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연대는 3분 가운데 가장 늦은 7세기 초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백제시대 왕도에서 벗어난 지방에 어떻게 이러한 불교문화가 집중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백제의 불교는 만인의 종교가 아니라, 왕실과 귀족만을 범위로 하는 소수 지배세력의 종교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흔히 내포지역의 대외 교통상의 기능을 들고 있다. 즉 이 지역이 중국의 선진문물 유입의 통로였으며, 그 결과 선진의 불교문화가 일찍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제시대 이 지역이 대외

5) 백제문화 유산중 유일하게 무령왕릉이 세계문화유산의 한국측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무령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조직적 추진이 필수적이다. 무령왕릉이라는 단일유적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적할 때, 백제 문화유산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부각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6) 공화화 훼손이 상영히 진행된 내포의 3분은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야의 중요한 문제이다. 백열등의 수직으로 삼존불의 얼굴을 비추어주는 난간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훼손된 예산 4면불의 불두 복원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교동의 주요 거점이었으리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왕족과 귀족들에 의한 지역문화의 기반이 일찍 자리잡혀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 내포3불은 백제 당시 이미 왕도에 버금하는, 독자적 문화발전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금강권에 위치한 백제의 왕도가 660년 나당군에 의하여 함락되었을 때, 가장 먼저 조직적 대규모적으로 '백제 부흥'의 군을 일으킨 거점이 다음 야만 이 내포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왕도에 버금하는 이같은 독자적 지역기반의 구축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다.

5. 백제문화의 대외적 영향력

백제문화는 기본적으로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지배층의 주류가 고구려 계통이었다는 점, 백제문화의 발전에 중국의 선진 문화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백제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은 백제 이전에 이미 토착민에 의한 문화가 전개되고 있었고, 결국 외래의 신문물은 토착문화의 바탕과 자연지리적 이권에 영향을 입으면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충남권의 백제에서 꽃피운 고대문화는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라의 대표적 사찰이었던 황

룡사와 9층탑 건설에 백제의 기술자 아버지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백제 석탑의 조성이 신라에서 계승되어 일반화되었던 것도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신라에의 영향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한되었다. 반면 백제문화의 고대 일본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광복할 만하였다. 백제의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불교라는 종교만이 아니라 불교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문화와 기술, 예술이 통제로, 신진의 지식인층과 함께 '팩케이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고대문화 개화의 기초가 되어 이후 일본역사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⁷⁾

백제문화의 일본에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파악 혹은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썩 혼란이 있다. 첫째는 백제문화의 영향에 대한 구체 양상은 장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중국문화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제문화의 일본에서의 전개는 직접적 간접적 이러 양상이 있으며 거기에는 일본 자체의 문화적 역량과 감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백제적인가는 면밀한 객관적 자료와 논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심증'과 감각에서, 과학적 자료와 근거의 제시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의 작

7) 근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近畿, 九州 등 일본에 산재한 백제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연차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업이 중요하다. 둘째는 일본에의 문화적 영향이라는 것을, 일본에 대한 문화적 선진성이라는 관점 일변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인식의 문제이다. 백제가 고대에는 더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랬다는 것이냐는 반문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대에 국제성 있는 백제의 역사를 이에 전백시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의 소재라 할 수 있다.

IV. 충남문화의 전개-백제문화의 계승

1. '붓의 문화'로서의 백제문화의 계승

충남에서 꽃피운 백제문화는 기본적으로 무(武)의 문화이기보다는 문(文)의 문화, 칸의 문화가 아닌 붓의 문화였다. 붓의 문화는 사상과 종교와 예술을 포괄하는 문화이다. 7세기 후반 백제는 정치적으로 멸망하였지만 그 문화적 바탕은 시대를 흐르며 계승되어 내려왔다. 신라, 고려시

대 불교문화의 진흥은 충남지역에 풍부한 불교문화의 유산을 꽃피우게 되었다.

불교문화의 중심 거점은 동부권은 계룡산, 내포권은 가야산 일대였다. 계룡산의 감사, 신원사, 동학사, 가야산 일대의 수덕사, 개심사 등이 그 유산이며, 그 중간 이간에 마곡사와 무량사 등이 현재 남겨진 대표적인 절들이다. 그러나 남겨진 곳보다 이미 황폐되어버린 곳이 훨씬 많았다. 구룡사를 비롯하여 계룡산 일대에 조성된 절들, 가야사, 보원사, 성주사 등 내포권의 절터는 한 시대 한국의 불교를 주춧돌 삼는 터전이었다. 불교의 신앙층 확산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이 조성되었는데, 충남의 경우는 거대규모의 석불, 혹은 바위대량에 새긴 마애불이 많이 분포한 것이 특징이 되고 있다. 크기로 말하면 높이가 20m에 가까운 논산의 관촉사 석불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거의 지역마다 이같은 석물들이 풍부히 조성된 것은 신라, 고려시대 지역 세력의 불교문화적 기반이 그만큼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그것은 백제민의 정치적 좌절을 극복하는 지역민의 에너지가 결집된 것이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2. 도지예술에 깃들여진 백제혼

백제지역에서 후대에 백제의 예술혼을 가장 잘 이루어낸 사례로서 도지예술의 발전을 들 수 있

다. 한국에서의 도자분화는 고려청자의 발전에서 기원된다. 고려청자의 기술은 중국의 송대 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고려청자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예술혼이 이에 섹백되어 꽃피워졌기 때문이다. 고려청자의 가장 대표적 산지는 전남의 강진과 진북의 부안이었다. 이른바 명품 고려청자의 주산지였던 것이다. 이들이 모두 서해 또는 서남해안가에 위치한 것은 생산 이후 소미지 개성까지의 운송 문제가 전제된 측면도 있겠지만, 청자의 제작 기술이 중국으로부터의 것이었음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다.

청자이후 한국의 도자문화는 조선초기의 분청사기를 거쳐 조선시대 백제문화의 발전과 보편화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백자는 이천, 광주, 여주 등지의 경기지역이 가장 명품을 생산하였고, 분청사기는 충남 공주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 흥미 있는 것은 이들 도자문화의 대표지역, 강진·부안과 이천·광주·여주, 그리고 공주 등지가 모두 고대의 백제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도자문화는 백제의 예술혼과 정인혼의 계승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자, 백자, 분청사기의 3개 관련지역 중 충남에 소재하는 것은 계룡산 분청사기로 유명한 공주이다. 공주의 분청사기 중에서도 반포면 학봉

리에서 많이 생산된 철화분청사기가 특히 유명하지만, 조선시대 15, 6세기의 분청사기 도요지는 공주의 이타 지역 및 인근 연기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공주 학봉리의 분청사기는 유달리 거친 테토에 막걸리색 같은 분창토를 바르고 귀얄로 선명하게 칠을 한 다음 자연철로 문양을 그리고 소성하여 짙은 먹색으로 발색하였다.⁸⁾

분청사기는 고려청자에 비하여 제작의 공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문양 등의 기법에 있어서 보다 자유분방함을 특징으로 한다. 청자가 귀족적이라면, 분청사기는 보다 대중적 취향이다. 청자가 고전적 미의 정수라면, 분청사기는 현대에술과도 소통이 가능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역사성에 비추어 충남에서는 분청사기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⁹⁾

공주의 도자분화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에 전해졌다. 당시 많은 노공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일본도자 문화의 발전에 절대적 공헌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른바 '아리타(有田)의 도조(陶祖)'로 유명한 이삼평(1579-1655)이 아마도 공주 지역에서 잠깐간 인부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1990년 일본 사가현의 아리타 사람들은 이삼평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뜻으로 공주시 반포면의 동학사 입구, 박정자 언덕에 7.5미터 높이의 이삼평 기념비를 세웠다.¹⁰⁾

8) 2006년 개관한 큐슈국립박물관 개관 특별전에는 오사키동영미술관 소장의 계룡산 철화분청사기가 대거 출품되어 한 코너를 조성하였다. 공주에서는 이미 보기 어려운 계룡산철화분청사기 명품을 한꺼번에 다지이후의 큐슈국립박물관에서 만난 느낌은 한미대로 '착잡' 그 것이었다.

9) 공주 반포면 상신리의 도예촌이 중심이 되어 분청사기 족제를 5년째 지속하고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바 있다. 족제의 발전이 도자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한편 도자기가 생활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3.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

조선왕조 5백년을 사상적으로 지배한 것은 유교의 성리학이었다. 불교가 종교적 문화적 범위가 그 한계였다면 성리학은 정치적 이념으로까지 기능함으로써 그 지배 범위는 불교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였다.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큰 학파가 성립하였다. 이퇴계를 정점으로 한 영남학파, 이육곡으로 대표되는 기호학파가 그것이다. 기호학파는 경기 및 호서지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을 말한다. 이 기호학파의 핵심지역이 바로 공주·논산·대전, 충남의 동부 지역으로서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 이들의 정치적, 문화적 파워는 실로 막강하였다. 16세기 이후 급강의 중상류층 배경으로 하는 공주·논산·대전 충남의 동부권은, 지식기반의 '트라이 밸리(Tri-Valley)'라 칭할 만 한 곳이었다. 오늘날 대전 일대에 취단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선 것도 역사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은 14세기 고려 말에 지식인사회에 기반을 잡았다. 그것은 불교분화를 축으로 운용되어 온 사회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성리학은 빠른 속도로 여말의 지식인사회를 점령하고 '성리학 혁명'을

일으켜 왕조 교체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 초기 성리학 시대에 기여한 인물로서 금강의 하규, 서천한산을 지역기반으로 한 이곡(李穀), 이색(李穡) 부자를 들 수 있다. 이곡은 여말 권부(權溥)의 제자이며 이색은 이제현의 제자가 된다, 즉 한산이 씨 가문인 이곡, 이색부자의 성리학은 기호학파의 시원을 조성하며 금강을 거슬러 올라 16세기 이후 금강의 중상류 지역에 성리학의 트라이밸리를 성립시킨 것이다.

4. 기호사학의 '트라이 밸리'

조선후기 성리학의 발전에 있어서 충남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그 중에서도 충남의 동부지역 공주, 논산, 대전 지역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배출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주에서는 입진왜란 이전에 고형 시기(1523-1591) 를 배출하였으며, 그의 유적이 반포면에 남아 있다. 공주시 상왕동 출신의 초려 이유태(1607-1684)는 공주의 성리학자도 가장 저명한 학자이다. 그의 묘소는 연기군 송촌면, 행정도시 건설지역 안에 있으며, 유품의 일부는 공주대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10) 필자- 이삼평의 숭수지가 공주일 가능성이 높다- 의견은 제시한 바 있지만(유용현, 「아리타의 도조 이삼평과 공주, 『공주, 역사문화공진』, 2005) 아직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성립된 의견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타의 주민들이 이삼평의 기념비를 공주에 건립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공주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탄옹 권시(1604-1672), 농촌당 송준길(1606-1672), 우암 송시열(1607-1689) 등은 조선후기 한국의 성리학 및 정치 일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일련의 인물이다. 한편 논산 역시 성리학의 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산의 사계 김장생(1518-1631), 신독재 김집(1574-1656), 노성의 명재 윤중(1629-1714)이 그 예이다. 그 가운데 호서사림의 연원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이율곡의 분하인 연산의 김장생-김집을 근간으로 한다. 이들의 학문적 특성은 예학이었으며, 이는 양란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문하에서 송시열, 윤선거, 송준길 등 일련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호학파는 이퇴계의 영남학파와 더불어 조선후기 조선 성리학의 두 줄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송시열은 김장생의 분하로서 시인의 집권에 따라 중앙정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이른바 노론의 거두이다. 이들은 노성의 윤선거, 윤증부자와 대립하며 노·소론의 치열한 정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내용은 조선조 후기에 있어서 대전, 논산, 공주지역을 중심 거점으로 한 기호학파의 정치적 비중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문화적 개방성

역사적으로 볼 때 충남문화의 중요한 한 특성은 문화적 개방성에 있다. 백제문화 자체가 외래문화의 수용에 의한 이의 자기문화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령왕릉에서 백제 유물과 함께 수습된 중국으로부터의 도자기류,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온 관목(栜木)은 백제가 갖는 개방적 교류의 양상을 입증하는 것이다. 개방성에 입각한 백제문화의 발전은 다시 신라, 일본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충남문화는 백제문화의 개화 이래 외래문화의 자기화, 그리고 이의 새로운 확산에 의하여 그 문화적 역사적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백제문화 이래, 조선조 도자문화의 발달이나 성리학의 발전은 이같은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성리학의 시대가 그 힘을 상실할 무렵, 충남은 서양으로부터의 종교인 천주교의 초기 신앙 거점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였다. 충남 가운데 특히 내포지방은 '한국 초기 천주교의 못자리'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19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다. 당진, 서산, 예산, 보령 등지에 널려진 수대한 천주교 유적은 충남문화가 새로운 문화 요소에 개방적이며, 이를 자기화하여 발전시키는 저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11)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주최로 2000년 당진문화원에서 (내포지역과 한국 천주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내포지역에 소재한 천주교 관련 문화재(성당, 순교지 등)가 다수 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V. 충남문화의 정신- 충효정신과 문화적 개방성

1. 효와 우애

충남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충효의 정신'이다. '충효'라는 것은 특히 조선조 유교문화에서 특히 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충남의 경우는 반드시 조선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효와 관련, 대표적 충남의 효자로서 동부권에서는 향덕, 서부권에서는 이성만 형제를 꼽을 수 있다. 향덕이란 인물은 8세기 신라시대 공주사람이고, 이성만 형제는 15세기 대흥(예산) 사람이다. 향덕은 모친이 병을 앓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으로 고국을 빨아내고, 영양 섭취를 위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배어 먹인 인물인데, 삼국사기에 열전이 만들어질 정도로 당대에 효자로 부각되었던 인물이다. 이는 경주의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알고 집과 토지를 내리고 정려를 세우도록 하는 등 직접 포상조치를 하게 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향덕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효행에 대한 포상으로 정려를 세우게 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관련 유적이 그가 살던

공주시 소학동에 남아 있다.¹²⁾

대흥의 이성만 형제는 효행으로보다는 형제우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밤에 밧가리름 형은 아우에게, 동생은 형에게 서로 가져다주다 어느날 달밤에 서로 마주쳤다는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효행으로 널리 알려져, 15세기 세종대에 국왕으로부터 직접 포상을 받았으며 연산군 때 마을사람들이 이를 기념하여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예당저수지 부근에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동국삼강행실도에는 향덕의 효행과 이성만 형제의 효행이 글과 그림으로 각각 묘사되고 있다.¹³⁾

충남에서는 많은 효열의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 전 까지도 공주와 예산에서는 특히 효분화의 진직이 시장 군수의 시군정 역점 사업이었다. 이들 지자체 정책의 역사적 근거는 향덕이나 이성만 형제에게서 찾을 수 있다.

2. 충의 정신

효와 함께 전통적인 충의정신은 충남지역 출신 인물들에 의하여 높이 고양되었다. 백제 멸망기 3천 견사대를 이끌고 황산반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은 계백장군은 이 충의정신의 대표적 인물이

12) 윤용혁 「8세기의 효자 향덕과 그 유적」, 『공주, 역사문화론집』, 2005

13) 윤용혁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연산군의 효행과 우애』, 2002

다. 부여군 흥화면에 그의 출생지로 전하는 곳이 있고 지금은 팔충사라는 사당이 만들어져 있다. 계백장군 이외에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진 역사상의 충남 인물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고려 말 왜구 토벌에 공헌한 최영 장군(1316-1388), 수양대군의 정치적 야심에 희생당한 김종서(1390-1453)와 사육신의 성삼문(1418-1456), 임진왜란의 이순신(1515-1598) 장군 등이 그 유명한 예이다. 최영은 우왕 2년 부여에서 홍산 대첩으로 왜구를 대파하였으며, 병의 천령위 문제 제기를 계기로 요동정벌을 주장, 이를 결행하였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전, 죽임을 당하였다. "황금을 보기를 놀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훈을 평생 실천하였으며, 그가 죽음을 당할 때, 만일 자신이 탐오(貪汚)하였다면 묘 위에 풀이 날 것이라고 단언하였는데, 과연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종서는 함길도 국경지방에서 삭풍을 무릅쓰고 이진족을 막아 우리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보하였으며, 이순신은 조선이 일본에 의하여 거의 침탈 당할 뻔한 위기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구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비극적 죽음의 주인공이 되었거니와, 김종서는 공주, 최영과 성삼문은 홍성, 이순신은 아산 등이 그 출신지이다. 이들 지역에는 그 생가터나 사당 등이 남아 있다. 이같은 충의정신은 근대에 이르러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충남지방 혹은 충남 출신 인물에 의해서 활발하게 재현되었다.

청양의 최익현(1833-1906)은 한말의 위정척사운동으로 일본의 침략 의도에 대항하다가 쓰시마에서 순절하였으며, 김복한(1860-?)은 1906년 민중학과 함께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으며, 1919년 유림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발송하였다가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예산 출신 윤봉길(1908-1932)은, 1932년 상해 홍구공원에서 열린 '전승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 일본군 시라가와 대장, 제3함대 노무라 사령관 우에다 9사단장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사카로 이송, 처형되었다. 덕산면에 옛집이 남아 있고 충의사가 건립되어 있다. 서천 한산 출신 이상재(1850-1927)는 1895년 서재필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청년운동과 기독교운동에 투신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던 인물이다. 홍성의 김좌진(1889-1929)은 1920년 4월 만주에서의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1925년 대한독립군단의 대표가 되었던 인물이다.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출신으로 옛집이 남아 있다. 독립운동가이며 불교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한용운(1879-1944)은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출신으로 옛 집을 근년에 복원하였다. 천안출신 규관순(1904-1920)은 3.1운동에 참가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으며 심훈(1901-1936)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하여 복역하고, 1932년 당진에 잠적하여 농촌계몽소설(상록수)을 쓰고 상록학원을 설립하여 농촌 계

봉운동에 헌신하였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충남사람들이 보여준 이같은 충의적 행위는 그것이 충남정신의 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충남 충의정신의 연원 -백제부흥운동

충남지역이 이치림 충의 정신의 중심무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신적 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그것은 백제 멸망기 백제인들이 보여준 백제부흥운동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¹⁴⁾

부여 함락이후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 부흥운동(660-663)의 중심은 주류성과 임존성이었다. 주류성은 백제 부흥운동기 왕과 지휘부가 있었던 곳이고, 임존성은 부흥운동 최초, 최후의 기점이었다. 주류성은 충남 시천 한산의 건지산 성설과 전북 무안의 위금암산성의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임존성의 경우 그것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일대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예산의 임존성은 표고 483.9미터의 봉수산에 구축한 것으로 성의 규모는 2.8킬로이다. 흑치상지가 봉기하여 임존성에 의거하자 10일 만에 3만 여명이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복신 등이 이에 합류하였다. 이에 소정방은 나당군을 동원하여

660년 8월 26일 임존성을 공격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소정방은 9월 3일 유인원의 1만 당병, 김인태의 신라 7천군으로 사비를 지키게 하고, 의자왕 및 왕자들 및 대신 장사 88인, 백성 1만 2천 807인을 포로로 하여 뱃길로 귀국하였다.

661년 초 복신, 도침들은 사비성에 대한 2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부흥군은 거점을 임존성에서 주류성으로 이동하여 있었다. 나당군은 부흥군의 거점, 주류성을 공격하였으나, 복신에게 대패하였다. 661년 9월 왜에 미뫼던 왕자 풍이 귀국, 백제의 왕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부흥군 내부에서는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는 등 내분이 야기되었다. 주류성을 함락한 나당군은 10월 22일(663)부터 임존성 공격에 나섰다. 지수신의 부흥군이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11월, 임존성은 항장 흑치상지에게 함락되고, 지수신도 고구려로 도망함으로써 백제 부흥운동은 종식되었다.

4년 간의 부흥운동의 기점이 되었던 것은 특히 임존성의 내포지역, 충남의 서부지역이다. 고려 이후 충남지역에 많은 충의의 인물이 배출되고, 최영, 성삼문, 이순신, 김복한,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등 그 대부분이 충남서부 지역출신이라는 사실은 백제 부흥운동의 정신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맥맥히 이어져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14)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편의 논저가 간행되었다. 노종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김영민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VI. 맺는말- 백제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충남문화

충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백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백제는 기원 전후한 시기로부터 7세기 후반까지 존속했던 고대 국가이다. 그리고 그 영역은 오늘날의 서울 경기지역으로부터 호서, 호남지역에까지 걸쳐 있다. 백제의 서울이 충남 지역으로 옮겨진 것은 475년의 일이고, 따라서 충남 지역의 공주 부여가 백제의 중심이었던 것은 대략 2백년이다. 백제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충남은 그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백제문화가 고대문화로서 꽃피운 것이 이 시기였기 때문에 충남은 백제의 문화적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의 역사문화의 발전도 이러한 백제문화의 후대 계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백제문화의 문화적 기반과 창의력이 후대의 문화발전에 의하여 발휘되었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향후 충남의 문화적 발전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향후 충남문화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사회의 선도적 역할

백제문화는 한국 고대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것은 신라 혹은 일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불교문화의 발전, 성리학의 발전 등 지역문화의 진흥이 면면히 이어 내려왔다.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구축을 과제로 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과제에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충남문화의 발전은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적 역할의 감당이라는 목표를 필요로 한다.

2. 충남정신의 현대적 계승

역사적으로 볼 때 충남정신의 현저한 내용의 하나가 충의정신이였다. 충의정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에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 정신이다. 이를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중히 여기는 이타적 정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현대사회의 한 미덕으로 상려되어야 한다.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다면, 그것은 사회에의 봉사정신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이 한편으로는 개인의 창의력에 기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공동체의 발전, 문화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봉사적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3. 문화예술의 진흥

백제문화의 특징은 문화예술의 진흥이다. 비술, 공예, 조각, 음악 등 여러 부문의 예술과 학문이 발전하였다. 문화와 예술은 시대를 달리하며 양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보편적 요소가 함께 있다. 백제시대에 발현되었던 문화예술의 감각을 재창조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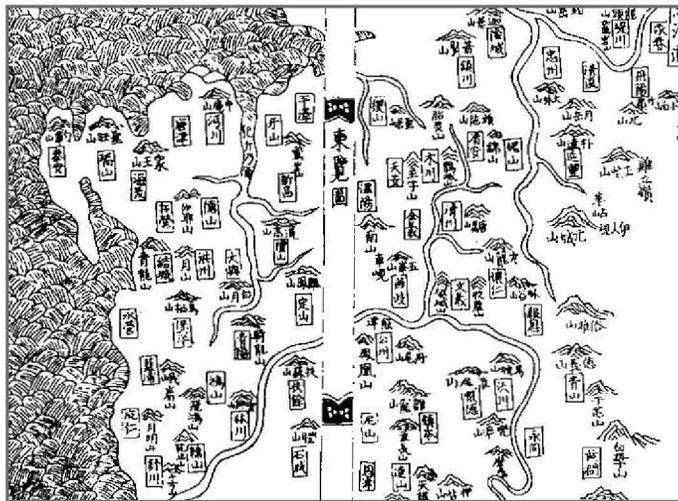
4. 문화콘텐츠 개발에의 활용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는 충남의 역사적 전통, 혹은 백제문화로부터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 혹은 지역문화의 전통적 소재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 그리고 현대의 지역문화와의 접목을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한다.

5. 개방성에 기초한 국제교류에의 활성화

백제문화의 특징은 문화의 개방성에 기초한 국제적 교류와 영향력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신진문화 요소의 도입, 자기문화로의 발전, 문화에 의한 대외적 영향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의 경우 지역문화의 국제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능력과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여지승람 충청도 지도